후원회소식

통권 194호 | 발행일 2007. 12. 15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부패비리 후보사퇴 촛불집회'

BBK 주가조작 사건수사 규탄▶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출소장기수를 만나다 임미영 • 6 / 추모사 권오헌 • 9 / 양심수 가족을 만나다 · 최기영님의 부인 김은주님 임미영 • 11 / 이런회원 · 전 간사 송록희님 송지영 • 15 / 산행기 · 또 하나의 통일동산 장병수 • 18 / 감옥에서 온 편지 장민호 외 2명 • 20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3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5 / 재정보고 • 35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범죄자는 감옥으로, 양심수는 가족품으로,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 세계인권선언 발표 59돌을 맞은 오늘의 인권실태 -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회장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사면복권, 비정규직악법철폐, 재소자 인권 보장, 형행법의 민주적 개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19일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포항건설노조 김봉태 전 선봉대장 등을 시작으로 11월 26일엔 변외성 전 전해투집행위원장이, 12월 3일부터는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전위원장과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장승표지부장, 한미FTA를 반대하다 구속된 민조노총 대전본부 박종갑 조직국장, 뉴코아—이랜드투쟁으로 구속된 부천일반노조 안병문조합원,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 양심수 등 20여 명이 영등포, 서울구치소와 영등포 마산 김천 포항 경주 안동 대전 광주 전주교도소에서 단식농성에 합류했다.

이 같은 옥중 양심수들의 요구를 지지 연대하여 11개 노동 인권단체로 구성된 '구속노동자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 12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양심수전원석방과 사면 보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구속노동자 옥중투쟁지지 및 성탄절 사면촉구' 1인시위에 들어가 단체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심수옥중연대 단식을 지지하는 연속신문의견광고를 내고 있다. 이보다 앞서 11월 1일엔 국가보안법폐지와 박준의석방 촉구 기자회견, 11월2일엔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야만의 시대를 끝내자'가 있었고 11월 5일엔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 3보 1배 투쟁이 11월 23일까지 이어졌으며 11.14일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대표들이 청와대 차성수 시민사회주석을 면담하며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사면복권을 촉구했었다.

이처럼 양심수사면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쉼없이 어어지는 것은 이들의 구속과 사법처리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양심수는 처음부터 구속대상이 아니었다. 이들은 권력형 부정비리사범이 아닌 것은 물론 파렴치형사피의자도 아니다. 양심수는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 사회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들은 자주통일을 위해서,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미FTA협정을 반대하다가 구속되었다.

양심수는 국가권력과 사회정의 실천과정의 산물이다. 불의와 모순이 있는 곳에 민중의 저항이 있었고 필연적으로 양심수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양심수의 존재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현재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구속되어있는 양심수는 688명이었고 이들을 제외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는 11월27일 현재 1154명이었으며 국가보안법 적용 양심수는 157명이었다. 학생이 176명, 노동자 746명, 농어민 43명, 재야활동가 등 183명, 군인이 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직도 노동자 50명 재야들 17명, 학생 4명, 철거민 4명, 농민 1명 등 76명이 갇혀있다.(민가협조사)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발표' 59돌이 되는 날이다.

인류사회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 등을 규정한 이 선언은 '인류헌법

의 전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했고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법 앞에 평등, 정당한 이유없이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누릴 권리 등을 규정하고 이어 사회보장을 받은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할 권리,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는 이 선언을 채택 선포하면서 모든 개인과 사회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의 념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가맹국의 인민들로 하여금 이 선언을 보편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9돌'을 맞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의 인권현실은 참담할 정도이다.

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은 국가보안법으로 짓밟히고 있다.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에 반하여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통일애국인사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다. 순수학문연구논문인 통일전쟁론을 단죄하여 대학 강단에서 몰아내고 있으며 교사들의 통일관련 자료를 반국가단체를 동조하는 이적표현물로 기소하고 있다. 평화활동가의 사진작품을 국가기밀로 기소하고 있으며 80고령의 통일원로를 해외교포와의 정세교환내용을 국가기밀누설혐의로 구속했었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적용 정치수배 8년의 엄마가 8개월 된 갓난아기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이행에 앞장서온 범민련 한총련, 한청, 범청학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자주통일운동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 더구나 10.4선언에서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사상탄압 분단고착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은 지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적용으로 구속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공소철회하며 한총련대위원으로 쫓기고 있는 애국청년들을 수배해제하야야 한다.

참여정부출범 이후 양심수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였음은 위 통계에서 보여주었다.

오늘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생산의 주체이자 가치창조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력으로서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의욕을 지닌 인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를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력으로만 취급 초과이윤을 위한 고강도노동 저임금체계를 지향하며 비정규직으로 몰아내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 보존과 가족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노동의 댓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된다. 당연히 노사 당사자협의원칙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권력은 초과이윤을 노리는 자본의 논리편에서 쟁의 자체를 공안대상으로 하여 사법처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초국적자본이 지배하는 필연적 소산이다.

일할 수 있는 권리,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제, 노동조

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협의권, 단체행동권 행사 등은 이제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였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의 노동현장은 이러한 주장이 한갓 희망사항일 뿐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고 전체임금노동자의 55%에 해당되는 86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 3권 행사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노동자임 자체마저 거부당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분신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60%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가 발생했을 때 많은 노동 현장에서 해고와 직장폐쇄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안은 오늘 비정규직 확산법이 되고 있고 이 법이 시행되기 앞서 이랜드 그룹과 홈에버는 무더기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했다. 최근엔 삼성 에스디아이 불법파편업체인 하이비트에서 2000여 노동자가 해고당했다. 이 시간 현재 많은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이랜드, 뉴코아, 포스콤, 삼성하이비트, 삼성코엑스, 신세계이마트, 기륭전자, KTX새마을호, GM칼텍스, 철도, 코오롱 등에서 장기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시위를 공안대상으로 하여 무더기로 구속사법처리하고 손배가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신성하고 즐겁고 보람있어야 할 노동이 천대받고 고통받는 기아임금노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노동자들이 양심수의 70%로 차지하고 있다. 즉각 구속노동자는 석방되어야 하고, 손배가압류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3대 요소의 하나이다. 입을 것, 먹을 것과 함께 사람 생활의 절대적 필요요건이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자본제 사회에서는 집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절대 농지였던 논밭을 파헤쳐 끝없이 집을 짓고 가진 사람들의 부를 축재하고 있다.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2007년 현재 주택 보급율은 110%가 넘었다고 한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다 집을 갖고서도 10%가 남아돌고 있다. 문제는 자기 집을 가진 보급률이 55.6%에 지나지 않는 데 있다.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세와 사글세 아니면 노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시 재개발 때마다 땅 없고 집 없는 영세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일이다. 쫓겨난 곳이 또 재개발하면 다시 쫓겨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주거권은 생존권과 함께 민중 삶의 기본권이다. 강제 철거에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한 저항을 공무집행방해 등 죄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 집 없는 고통에 감옥까지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부당하게 갇혀 있는 철거민 양심수는 당연히 석방, 사면, 복권돼야 한다.

또한 감옥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 종교인, 활동가들이 갇혀 있으며 동족을 겨냥하고 동북아패권을 노린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했던 활동가와 대북침략전쟁연습을 반대했던 평화활동가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살육과 파괴가 뒤따르는 전쟁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반인권 반평화 행패이다.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 등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로 가야할 때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 평화활동가를 탄압하는 것은 평화와 인권에 대한 도전이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배치되는 폭거이다. 평화를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재판 중인 관련자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부당하게 양심수를 잡아가두면서도 정작 감옥에 갈 부정비리 범죄자는 사법 당국이 감싸오고 있어, 인권과 사회정의가 짓밟히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삼성재벌의 불법대선자금제공 등 부정비리 범죄행패와 무노조경영, 부당노동행위, 노동자 인권유린을 고발했던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의 구속사건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자에게 수백 억 원 씩 불법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집행

유예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던 데다 도청테이프 녹취록에서 들어났듯이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제공 등으로 고발당했지만 해외로 도피했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무혐의 처리했었다. 그러한 삼성재벌의 불법비리는 최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양심선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바로 국외법인을 통해 2,00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으로 '행복한 눈물' 등 수백 억 짜리 고가미술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중앙일보사를 홍석현회장에게 명의 신탁하여 위장 계열분리했으며, 2000년 기준 삼성중공업 2조원, 삼성항공 1조6천 억 원, 삼성물산 2조원 등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을 공모했고 수많은 차명계좌를 설정, 이건희 일가의 자산을 보유 관리했다. 또한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자료를 불법폐기하여 범죄를 은닉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재용전무(아들)에게 넘기기 위한 각종 비리도 들어났다. 삼성은 또한 검사, 판사 출신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는가 하면 정관계 요인들에게 떡값을 제공했고 특히 검찰간부 40여 명에게 1년 3차례 씩 500~1,000만원 씩 떡값을 제공했다. 이러한 김용철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은 다음 청와대 고위간부가 떡값 받은 사실과 되돌려 주었다는 증언을 하여 김용철변호사의 양심선언의 신뢰성을 높이게 했다. 검찰이 삼성재벌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무노조경영,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발한 김성환위원장을 기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이른바 BBK주가 조작사건이 발표되었다.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의혹이 풀릴지 지켜보았었다. 그런데 검찰은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는 김경준이고 '한글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이명박후보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날 김경준을 면회하고 돌아온 통합신당의원단과 이회창후보 측 인사들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였다. 김경준에 따르면 검찰이 '이명박을 칠 수가 없다. 검찰도 알고 김경준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면계약서를 다 네가 위조했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형량을 조정하겠다며 검찰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했다. 김경준이 11월 23일 장모와의 필담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는 꼴이다. 개탄할 일이다. 검찰발표 뒤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발표가 '믿음이 안간다'가 56.9%, '믿음이 간다'가 35%였다.

이미 삼성재벌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끝났다며 무혐의처리하고, 김성환위원장은 명예훼손으로 구속하는 사례에서 보았듯이 검찰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인권의 최후보루라 자처하는 검찰이 피의자와 형량을 말하며 진술을 강요했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사법정의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에 의해서 수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으로 끌려갔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범민련, 한총련 등 이적규정 철회하라.

모든 양심수석방과 사면복권하고 정치수배 해제하라. 삼성그룹 등 불법비리, 주가조작 사범을 구속하고 사법정의를 세우라.

알립니다

양심수후원회 2007년 회원 송년모임

■일 시 : 2007년 12월 16일 (일) 낮 12시

■장 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 새서울 주물럭 (02-736-5797)

나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오!

- 출소장기수 김동수선생님을 만나뵙다. -

임미영 | 후원회 사무국

나는 어제 엄마의 첫째 기일을 맞아 부산에 내려왔다. 쉽지 않게 내려온 터여서 얼마 전부터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원을 드나드신다는 김동수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께는 내려와서야 비로소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점심이나 같이 하자시자고 하셨다. 나는 이 마당에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일 년이 된 것을 돌이키면서 동시에 시간의 빠른 물살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미루어지는 2차 송환을, 유일한 희망으로 안고 계실 선생님을 생각하니 그만 뵙기가 송구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부산의 북구 덕천동 산기슭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벨을 두 번이나 눌렀지만 안에서 기척이 없었다. 나는 문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선생님! 하고 부르며 문고리를 돌렸는데 문이 열리자 미처 벨 소리를 듣지 못하신 선생님은 좁은 방 한 켠에 우두커니 앉아계셨다. 선생님은 나를 보자 낯이 선데다 또 혼자 나타난 것이 뜻밖이었는지 처음에 좀 멀쑥한 표정이셨지만 인사를 드리자 곧 순진한 웃음을 얼굴 가득 띠운 채 맞이해주셨다

좁은 방의 벽에는 커다란 세계지도와 또 아주 건장하실 때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고 그 아래 방의 구석진 곳에 살림도구와 함께 쌀 포대만한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것으로 보아서 선생님은 지금쯤 병으로 따지면 치료가 되거나 치료중이거나 한 병명만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감옥에 계실 때에 전기고문의 후유증으로 얻은 전립선비대증에다가 당뇨병이 있어서 지금 시신경마저 온전하지 않으시다. 또 몇 년 전에 앓기 시작한 대상포진으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다. 대상포진이라는 병은 그 통증이 예사롭지 않았을 텐데도 선생님은 당신 몸 하나 무어 그리 대단한가 하고 꾸역꾸역 견디시다가 병원엘 가셨다. 의사는 그 통증을 어떻게 그렇 게 통증을 참았는가고 놀라며 치료시기가 많이 늦어졌음을 걱정했다고 한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4년 전에 디스크수술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고생 하시고 지금은 미처 회복되지 못한 여러 가지 병으로 몹시 힘드실테데도 아픈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다.

또 11월 초순쯤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시느라 뒷산에 잠깐 올랐다가 누군가가 매듭지어놓은 풀에 걸려 넘어지셔서 의식을 잃고 아침에야 깨어나신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리저리 노후의 선생님은 송환을 기다리는 세월동안 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이다.

선생님은 1937년 7월 25일 함북 김책시 수원동에서 2남4녀 중 둘째로 태어나셨다. 지금 이른 한 살로 선생님은 권오헌회장님과도 동갑내기라며 회장님의 생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선생님은 쌍둥이로 태어나셨는데 같이 태어난 아이는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

단다. 부모님은 해방 후에 리인민회 공산당위원장에 당선된 당원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유복한 유년기를 보내셨다. 전쟁시기를 거쳐 순탄하게 고교를 졸업 후 수산대학 운영과-남한으로 말하자면 경영학과인 셈이다-를 졸업하신 인텔리이시다. 선생님은 대학 졸업 후 흥남에서 무역업에 종사하셨다. 그 당시 이북에서는 청진과 흥남과 남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역항이었다.

선생님은 무역업에 종사하던 중 해외로 유학 갈 기회를 맞으셨다.

유학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알바니아 루마니아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선생님은 특별히 쿠바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 당중앙위교육과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쿠바로 떠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다한다. 그 이유인즉 그 당시 쿠바만 해도 서양문물의 개방으로 서양의 성풍속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미혼인 경우 혹시 그 성풍속의 좋지 못한 영향에 젊은 청년이 놓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실 선생님은 그때, 후에 결혼을 한 사모님과 연애중이셨고 서류상으로는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하셨다.

그런 상황에서 1964년 당의 부름을 받아 통일사업에 투신하게 되어 내려오시게 되었다. 선생님은 같은 동료 4명과 배를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오셨다. 같은 임무를 띠고 네 사람 한 조가 되어 내려왔는데 그 중 한 분이 북으로 송환되신 신인영선생님이셨다.

네 사람은 주어진 임무를 -그 임무 중에는 신인영선생님의 부친을 만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를 완수하고 다시 배편으로 돌아가시다가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체포되셨다. 한 분은 체포현장에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교도소에서 병사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신인영선생님과 선생님은 체포되셨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출소할 때까지 감옥에서의 전향 공작으로 온갖 고문과 야만적 폭력에 고통당하시다가 1988년 되어서야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셨다.

선생님은 출소하신 후 부산에 마침 막내이모가 계셨기 때문에 이모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자 가구공장과 유선방송사에 취직하는 등 남한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셨다. 이후 부산에서 울산으로 옮겨가셔서 오리농장을 운영하시다가 오리농장을 처분한 후에 그 당시 농촌 실정도 알 겸 하여 농사짓는 집에 마름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젖소를 돌보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들어갈 때 젖소들이 주인의 난폭한 사육법으로 모두 살이 찌지 않고 앙상하게 말라있었다고 한다. 선생님은 동물의 습성이나 섭생을 잘 살핀 후 주인의 사육법을 멀리하고 젖소를 쓰다듬어주는 등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주었는데 놀랍게도 이후 젖소들이 살집이 오르고 당연히 우유생산이 늘어나게 되어서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한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물에게도 정성과 애정을 다하면 동물들이 인간에게 돌려주는 게 많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다.

선생님은 남한에서 생활을 하면서 항상 물욕을 멀리하고 선생님의 조국에서 교육받은 대로 높은 도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인간을 존중하고 동지를 귀하게 여기며 남한사회에서의 천박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것에 맞서면서 생활하셨다.

선생님은 1992년부터 부산의 민가협에서 일꾼으로 활동하시기도 했는데 그 시기에 서울의 민가협과 모임

도 갖기도 하고 권오헌회장님과도 인연을 맺었다고 하신다. 선생님은 2003년 수술 전까지 그 일을 하면서 민주와 통일일꾼으로 민주와 통일운동에 전념하셨다.

선생님은 송환되고자 하는 일념을 접지 못하는 것은 내려오실 때에 갓 돌을 지난 딸과 혁명가의 아내로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아내를 만나보려는 소망때문이시다.

착하고 이해심이 깊었던 아내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 그 당시 굉장한 미인이셨던 어머니에 대해서 자랄 때까지 아버지가 미인을 아내로 둔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던 것을 추억하시면서 얼굴에 마냥 행복한 개구쟁이의 웃음을 띠우셨다.

선생님은 혁명이나 사회주의의 완성은 가정의 행복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라고 하신다. 이즈음 이 사회에서의 가정의 붕괴는 다름아닌 물질의 과도한 생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이 인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부의 쏠림에 의해 필연적으로 노동자가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북의 가족이 더욱더 보고 싶고 오직 혁명가의 아내로서 일편단심 지조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아내와 가족과 미제에 맞서 강고히 맞서고 있는 조국을 생각하면 자신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다고 송환의 희망을 접지 않으신다.

선생님은 유병호선생님 안학섭선생님 류락진선생님 등 감옥에서 지내던 훌륭한 동지들을 기억하신다. 지금은 몸의 상태가 나빠서 동지들과 합류하는 일에 자유롭지 못하고 계신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고 하신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10.4 남북정상회담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몸으로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조국과 가족들의 품에서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알립니다

6.15 한마음 통일 산악회 제 5차 산행

■일 시 : 2007년 12월 23일(일) 이른 9시 30분
■장 소 : 관악산 ■모이는 곳 : 낙성대 입구 전철역 7번 출구 쪽 개찰구 앞
■준 비 물 : 간단한 도시락, 회비 3,000원

북녘어린이 콩우유 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중인 '북녘어린이 콩우유 보내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독지가께서 북녘어린이 콩우유 보내기에 써달라며 10,0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예금주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우리시대의 의인 한길 권중희 선생님의 가심을 슬퍼합니다.

권오헌

한길 권중희 선생님이 무슨 하늘이 놀랄 슬픈 소식입니까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가시다니 못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아직도 생전의 선생님 말씀 귓전에 남아 있는데, 할 일이 많아 더 오래 살아야겠다고, 사람세상의 의로움과 민족정기 구현에 온 몸 바치겠다더니, 그리고 부당한 외세강점 60년의 치욕들 걷어내고 자주통일 세상을 이루어 내겠다고 포효하시던 모습이 눈앞에 서리고 있는데 이렇게 홀연히 가시다니 좀처럼 믿어지질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평생을 옳음을 지키고 그릇됨을 응징하며 잘못된 과거청산과 올바른 역사 만들기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비록 소수의견 편에 서 있다 해도, 아니 혼자만의 주장이었어도 그것이 정의일 때 결코 물러서거나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며, 상대가 국가권력이든 거대언론이든, 수구 냉전논리이든 당당하게 맞서 이치와 논리로, 말과 행동으로 거레의 얼과 민족의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려 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이 되고만, 제목글처럼 최소한의 염치도 양심도 없는 세상, 불의와 모순이 판치는 세상, 외세와 분단시대 뉘라서 이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지,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정도의 길만을 걸어 오셨던 선생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식민지배시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열다섯 많지 않은 나이에 벌써 瀆埇活舊侵를 읽고 민족혼을 가슴에 새기며 애국의 길로 가는 지침서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1981년 안두희가 백범선생 살해범죄를 부인하는 인터뷰 기사와 미국으로 도피를 위한 여권 발급 논란을 보시며 안 된다 결심하시고 생업으로서의 일터마저 그만두고 안두희 응징계획을 세워 추적에 나섰습니다. 1987년 3월 끈질긴 추적 끝에 안두희를 찾아내시어 마침내 정의와 역사의 몽둥이로 범인 안두희를 응징하셨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민족적 양심에 심지를 돋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두희에 대한 역사 심판 작업은 계속 이어져 1991년에서 92년 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백범 선생 살해 만행의 배후자백을 받아내어 1993년엔 篤ㅂ瑛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저서를 펴내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백범 선생 살해 배후조정자로 미국을

꼽으시기도 했습니다. 안두희가 당시 경무부장 조병옥과 수도청장 장택상 소개로 미중앙정보국 전신이었던 전략사무국(OSS)의 남조선 책임자(중령)를 알게 된 점, 그 뒤 OSS 장교와 안두희가 정보교환을 계속한 점, OSS 장교가 백범 선생을 제거해야 할 타이거 부르며 암살의 필요성을 흘렸다는 점, 미국이 백범의 남북협상 노선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점 등을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더욱 심층조사를 위해 2004년 2월 선생 암살 진상규명 조사단 꾸려 직접 미국에 가시어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 등을 방문, 열람하시는 등 진실규명 작업에 전념하시는 열정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생님께서는 백범 선생님을 살해한 범죄인에 대한 응징과 그 배후를 조사하는 한편, 분단조국의 평화적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민족의 자주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자 민족적 사명이라며 사상이나 이념 같은 것은 부차적 문제로 통일된 다음 국민총의에 물어 선택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는 데는 이 나라를 갈라놓고 통일을 방해하며 어떻게든 전쟁이나 일으키려는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주의나 사상, 종교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얼과 양심과 대의라 하시며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이야 말로 협상 대상도 이전 대상도 감축 대상도 아닌 오직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는 것이며, 이는 통일의 대전제이고 대원칙이며 민족의 지상명령이자 역사의 요구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한길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늘 강조하시기를 우리에게 소중하고 절실한 것은 민족적 양심과 얼이라며 민족정기를 구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새로운 점령자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맡기면서 친일주구들이 다시 지배세력으로 둔갑된 사실을 개탄하시며 이제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외세 간섭 없는 자주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쓰신 글에서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백성이야 죽든 말든 정치한다는 자들은 집단이기 내지 개인적 이해득실에만 눈이 뒤집혀 국민을 우롱하고 협박이나 하고 교육의 탈을 쓴 학원모리배들은 학원을 부정축재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으며, 신앙의 허울을 쓴 종교모리배들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며 파렴치한 범죄행각 등 반사회, 반국가적 못된 짓만 하고 있다탄 분개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의 거침없는 정론과 생각이 곧 행동이로 이어지는 의인의 모습을 못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그 고귀한 뜻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합의서 채택했습니다. 개성공단 활성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 신의주 간 철도,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각종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사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습니다. 남북해외 우리 동포의 굳건한 단결과 협력으로 선생님께서 늘 경계하셨던 외세간섭 배제하고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이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은 남은 사람들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편히 쉬시고 고이 잠드시기 빌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민족통일애국지사 고 한길 권중희 장례위원회

공동장례 위원장 권오헌

북녘 어린이의 엄마된 심정으로 우리 모두 다함께 하자구요!

- 최기영님의 부인 김은주님의 참 선량하고도 정의로운 삶의 이야기 -

임미영 | 후원회 사무국

며칠간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한낮인데도 겨울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었다.

대선을 앞두고 거리마다 곳곳에 벽보들이 줄줄이 나붙었다. 그 얼굴들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박하고 알량하기 짝이 없는 구호들을 앞세운 체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압살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반동적이고 불온한 음모들이 가득 드러나 있다.

연말을 맞아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김은주님을 만나러 공덕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서부지법 앞으로 갔다. 그리고 김은주님을 만나 사무실로 오르는 길에 있는 작고 따뜻한 찻집으로 들어갔다.

은주님은 이른바 일심회사건으로 일 년을 훌쩍 넘은 시간을-최기영님은 2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12월 중순의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놓고 있다.- 감옥에 갇혀있는 최기영님의 부인이지만 훨씬 앞서 1993년 '남매간첩조작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찌감치 이름이 알려진 김삼석씨의 누이동생이기도 하다. 10여년의 시간을 지나 어처구니없게도 남편마저 조작간첩사건으로 감옥에 앗긴 것이다.

희대의 안기부 프락치사건의 전형을 드러낸 남매간첩조작사건은 안기부가 1993년 9월 정기국회에 안기부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더러운 음모였다.

두 남매는 연행된 지 일 년 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고 3일 뒤 베를린에서 안기부 프락치 백흥용은 자기가 남매간첩 사건을 만드는데 개입했다며 당시 안기부 과장급 수사관의 동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뒤 11월 9일 대한변협에서 안기부 공작수사 진상조사를 발표하면서 국회에 국정조사 발동을 요청했고 1995년 1월 10일 국회 정보위에서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이 조작을 시인했다.

은주님은 1심에서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나왔지만 김삼석씨는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썼다는 것 때문에 4년 20일 만인 97년 9월 30일에 만기 출소했고, 99년 2월에 사면복권됐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던 김삼석씨를 박근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간첩운운하며 무고하는 만행을 저질러 국가폭력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활동을 하던 김삼석씨에게 다시 한 번 뼈아픈 상처를 주었다.

김삼석씨는 지금 수원에서 시민의 신문을 제작하여 수원의 경제권을 좌지우지하는 삼성재벌의 비리도 들추어내고 노동자탄압이 심한 아주대병원의 비리도 캐서 폭로하는 등 지역에서 여전히 왕성한 활동 중이시라고 한다.

나는 구속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투쟁에 최기영님이 깊은 연대의 뜻을 은주님에게 전해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근황을 물었다. 최기영님은 최근 건강이 나빠져서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원래 간염을 앓고 있어서 수감되기 전에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던 상황이라 구치소에서도 여전히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었다. 수감된 후 영등포구치소에서 최기영님의 상태를 방치했으며 급기야 가족들이 나서서 병원에 가 앰플을 받아다가 구치소에 가서 채혈하여 다시 병원에 갔다주고 결과에 따라 약을 받아주곤 했다. 그런데 약이 맞지 않았는지 구치소내 일괄 건강검진이 있었는데 수치가 아주 높게 나왔으며 다른 반응검사에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병원에 보여주었더니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아예 보석허가를 받아서 종합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은 선고일이 촉박하다 뭐다 해서 보석허가를 기각했다.

재소자의 인권이 방치된 전형적인 사례였다. 은주씨는 멀쩡한 사람 휠체어 태우고 나와 병보석으로 풀려난 한화의 김승현의 예를 들면서 법의 부당함에 대해 분개하였다.

우리는 김승현의 병명이 우울증이었음을 기억해내고 온갖 파렴치를 일삼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울할 만도 했겠다하고 웃었지만 이 나라에서 법은 권력의 하수인으로써 만인에게 평등하기란 애초에 물건너갔음을 곳곳에서 실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씁스레했다. 최기영님은 결국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치료약도 쓰고 있지만 항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병원치료를 위해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병실아닌 병실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하게도 많이 건강해졌다고 한다.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6월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거기에다가 상고기간은 수형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상고재판기간이 4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긴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몰랐던 은주님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금도 남편을 자주 면회를 가지 못하고 있다며 상고 재판이 끝나면 어쩌면 다른 곳으로 이감될 것이 분명한데 혹시 서울에서 멀리라도 간다면 지금보다 더 면회가기가 힘들어질 것이 더욱 걱정이다.

은주님과 최기영님과의 만남은 98년 총선 때 이루어졌다.

최기영님은 민주노총 대외력부장으로, 은주님은 전국연합 조직부장으로 있었던 때 민노당에 파견을 나와 조직실과 비서실에서 각각 일을 하게 되었다

뜻이 같거나 닮아 있어서였는지 특별한 끌림으로 가까워지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2003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38살과 36살의 만남이니 좀 늦은 결혼을 하여 지금 38개월(4살)된 '혁준'이라는 씩씩한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를 두고 있다. 지금 아빠가 곁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인 은주님 혼자서 일하랴 아이키우랴 여간 바쁘고 힘들지 않다고 한다. 최기영님은 아들 혁준이가 갓 아빠 엄마라는 말문을 틔울 때 구속되었다.

아이가 커나갈수록 활동량이 많아지고 머리가 영글어지면서 집에서 아이에게 균형을 잡아줄 아빠가 없는 것이 힘이 든다고 한다. 아이는 지금쯤은 '개는 왜 화장실을 가지 않는지' '왜 딸기는 껍질이 없는지' 등 온갖 호기심에 찬 물음으로 은주님을 놀라게 할 만큼 많이 자라서 이 시기에 아빠가 곁에 없어 후에 아이가 아빠에게 거리를 두지 않을지 엄마로서는 걱정이다.

아빠 엄마를 골고루 닮은 혁준이에게 은주님은 아빠의 부재를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주어야 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아빠가 처한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쯤은 왜 아빠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어렴풋이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쯤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빠를 면회가서 이제 아빠를 그곳에 두고 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아빠에게 있겠다고 떼쓰지 않고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올 줄을 안다고 .....

최기영님은 늘 아이를 보고싶어하여 자주 면회라도 데려와주기를 원하지만 바쁜 은주님은 자주 아이를

데려갈 수 없어서 남편에게 미안해 한다.

엄마가 된 은주씨는 이야기 중에 부모님을 생각키우며, 남편이 국정원에 연행되던 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은주님은 부모님에게 남편이 미리 연행된 사실을 알리고서 그날 저녁 아홉시 뉴스에 그 사건이 보도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엄마는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얼굴이 굳어진 채 우셨다고 한다. 특히 그 사건이 조작된 간첩사건인 것을 알고는 아들과 딸이 그렇게 국가폭력에 의해서 고통당했는데 사위까지 그러하다고 하시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9시가 되자 뉴스시간에 국정원에 의해서 사건이 발표되면서 최기영님의 모습이 비치자 혁준이가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를 만지듯이 티브이 화면을 쓰다듬었다고.....

지난 면회에서 최기영님이 참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고 인상이었다고 했더니 은주님이 말하기를 바깥일이 바빠서 집안일이야 돌봐주지 않지만 워낙 아이를 좋아하여 아이 하나만을 정말 자상하게 잘 챙기는 편이라며 그 외에 자랑거리가 별로 없다고 하더니 아이를 낳았을 때에 자신에게 참 잘해주었던 것도 기억해낸다. 또 더하여 지난 번 면회 때에 동지들과 동료들 걱정에 눈물 글썽이던 것을 말해주었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마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엄청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알고보니 최기영님은 아내에게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김은주님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후 무엇보다도 일심회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보살펴 주는 것과 그 중심에서 가족대책위를 이끄는 문치웅씨와 또 아주 씩씩하거나 조용히 포용해주는 동료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 마음 아프고 고단한 중에 같이 근심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힘든 시간을 잘 견디어낼 수 있으며 그 힘으로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김은주씨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북녘어린이 콩우유돕기사업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유월에도 콩우유돕기사업본부에서 평양에 다녀왔다.

지금 북녘어린이돕기지원사업에 일조를 학고 있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된 후 내 아이에게 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일하게 되었다.

일전에 어떤 일로 일본사람을 만났는데 북의 실정, 특히 물질적으로 당장에 풍요롭지 못한 것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길래 은주님은 자신으로서 해 줄 수밖에 없는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

'당신은 가령 당신이 좋아하는 코카콜라가 북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 자본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가치들이 있다. 한 면이 아닌 여러 면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개방된 시선으로 보면 북은 우리의 가치기준을 넘어 오히려 잘 살고 있다. 이곳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지옥이고 그곳은 물질적으로 부족하나 천당이다' 라고.

내게 두고도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였다. 적어도 개방과 개혁은 남한의 숙제이지 북이야말로 오직 인민을 위한 열려있는 사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은주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은주님의 북녘에 대한, 특히 북의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은 단순히 지원사업을 넘어 높은 정치의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여겨졌다. 지금은 콩우유돕기사업본부에서 일하는 한사람의 실무자일 뿐이지만 자신이 열심히 뛰는 만큼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중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아주 뿌듯해하고 있었다.

콩우유기계는 콩우유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찌꺼기 하나 버려지는 일없이 두부 비지 등을 눌러서 먹고 또 두유를 생산하지 않을 때는 기계가 물을 데워내는 역할도 하여 북녘 아이들의 위생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그 쓰임새가 아주 다양하다고 한다.

우리가 하루에 일이백 원 아끼면 북녘의 아이들에게 콩우유기계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지를 다졌다.

남편 최기영님은 일찌감치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으므로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은 10년 안에 통일된 조국이라고 자나깨나 강조해왔다. 그러므로 북의 선군정치라든지 북의 주도에 의한 전격적인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간의 정상회담 등 현 정세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진보적이며 더없이 인간적인 통일일꾼의 역할이 아내에게 뿐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도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최기영님은 길어질 감옥생활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당의 문건들을 정리하는 일이며 민노당 결성 처음부터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당 십년사를 정리하는 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큰 대접만한 머그잔에 가득하던 코코아차가 까맣게 가라앉은 바닥을 드러낼 때가지 두런두런 한 이야기가 이미 두 시간이나 계속되는 동안 은주님은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들의 아픔을 곧 자신의 것으로 여겨 함께 하고자 하는 심정을 토로하는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했다.

나는 다가올 후원회원송년회에 아들 혁준이를 데리고 와달라고 청한 후 최기영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값을 치르고 차집을 나서서 사무실로 걸어가는 은주님의 뒷모습은 껑충 큰 키와 추위에 어깨를 움츠린 모습 때문인지 딴은 좀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 쓸쓸함이 주는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아까보다 더 차가와진 바람을 안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알립니다

2007년 '양심수후원 기금마련을 위한 서화전' 총결산과 수익금 지출현황

수 입	62,396,560원
서예작품 판매금액	59,000,000
큰불피해돕기 모금액	3,396,600
총 액	62,396,600
서화전 지출비용	23,877,560

잔 액	38,519,040원
만남의집 관련 세금(법인세, 취득세)	19,837,030
후원회 차입금(9, 10, 11월)	3,900,000
큰물 피해돕기 10,000,000원 중	6,200,000
	29,937,030

62,396,600(총수입)−53,814,590(서화전 지출+후원회차입금+세금+큰물피해돕기)=8,582,010(잔액)

후원회와 마음으로 동행한 제비꽃 같은 여인

- 초기 간사에서 회원으로 돌아온 송록희님을 동행취재하다 -

송지영 | 후원회 사무국

서화전 준비를 도와주던 모성용선배님께서 반가운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며 소식지 보내라며 주소 수정하라고 메모를 해줘서 처음 이름을 접한 것이 지난 8월 말이었다. 주소만 달랑 있고 전화번호가 없기에 "전화번호는요?" 하고 물었더니 "아차, 다음 월요일에 다시 전화해서 CMS 불러 준다 했으니 그 때 받아둬."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연락 없이, 9월, 10월이 지나고 시흥동에 사시는 정관호선생님 댁에 마침 모성용선배님과 방문하게 되었다. 주소가 록희언니는 521동, 정관호선생님께서는 524동인 덕에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던 모선배님께서 친히 521동까지 방문하셔서 전화번호를 받아오고야 말았다. 그래서 통화하고 CMS를 받고, 그 이후로 몇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 밝고 건강하고 씩씩한 음성을 들으며, 멋대로 '투사'의 이미지를 떠올렸던 것 같다.

지난 산행 연락을 하며 "한 번 나오시죠!" 했더니 그러마고 흔쾌히 대답을 하셨는데, 옆에서 이재문선생님 추도회를 간다고 연락하고 있던 모선배님께서 전화를 채가더니, 언니마저 그 쪽으로 채갔다. 결국 산행이 끝나고 회장님과 언니, 모선배님, 김영옥 선생님께서 합류하시는 것으로 하고 뒷풀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런데 뜻밖에 자그마한 체구에 마르고, 눈이 맑고 미소가 예쁜 연약한 외모의 여인이 함께 들어와 서는 인사를 한다. 게다가 노래를 시키니 사양도 없이 <열정>을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가' 의구심이 들게 열정적으로 부른다. 낮부터 마신 술로 취기가 올라 시끌벅적한 자리에서 이병건 선배님이 자고 있는 아들 호준이도 제쳐두고 술잔을 들고 와서 반가움을 나누는 것을 보고 '이런 회원'으로 취재하면 반가워 할 사람들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드리니 "기말고사 기간이라 정신이 없고 다음 주에 밥 한 번 살께요."라는 답문이 돌아온다. 결국 어제 신촌에 갈 일 있다는 언니를 서울대입구역에서 만나 맛있는 점심 얻어먹고, 일정이 빡빡한 언니를 신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동행취재에 성공했다. 회장님께서 "사진 예쁘게 찍어오라"고 특별지시를 내리신 바 있어 점심을 먹으려고 간 푸드 코트에서 사진기를 꺼내드니 "맞죠! 그렇죠! 이거 회원 동정 취재하는 거죠? 에이 나 하지 마요!"한다. 하지 말란다고 안 할 내가 아니기에 취재는 쭉 이어졌고, 세 시간 정도 동행하며 언니를 할 생각을 한 내가 스스로 대견스러워지기까지 했다.

아버님이 태몽으로 너른 들판에 사슴 한 마리가 거닐고 있는데 어디선가 선녀가 나타나 둘이 함께 있는 것을 꾸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란성쌍둥이로 언니가

먼저 태어나 사슴 '록'자를 써서 '록희', 동생은 선녀 '선'자를 써서 '선희'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눈이 사슴 눈을 닮은 모양이다. 게다가 동생 분은 스튜어디스를 지내고 미인이라시니 선녀가 따로 없겠고, 아버님이 이름을 잘 지으신 것인지 이름은 따라간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던 이유정변호사와 이화여대에 같이 입학한 후 변영주 감독이 회장으로 있던 국제정치연구회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동아리 활동은 친구가 데모할까봐 말리려고 같이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유정변호사는 법대 2학년이 되자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활동을 그만두고 말리려던 언니는 '데모' 하는 학생이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1학년, 86년 건대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89년 학내 축제 기간 중 직선제로 뽑힌 평양축전준비위원장으로 한양대에서 임종석의장의 "통일의 꽃 임수경 학우가 평양축전에 참가했습니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이닥친 전경들에 의해 두 번째 구속이 되어 6개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구치소 양심수들이 모여 있던 곳에서 보낸 6개월의 시간은 언니의 이후 인생에 여러 사건을 만든다. 인생의 반려자를 소개받게 되고, 임수경씨와의 만남으로 세 번째 구속 사건을 겪게 되고, 그 구속으로 언니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임수경씨의 선고공판이 있었고 먼저 나와 있는 것도 미안하기만 했다는 언니는 당연히 친구로서 선고공판이 끝나고 호송차를 막아섰다. 짐작컨대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이다. 결국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고 담당 검사가 "너 고생 한 번 해봐라"라고 하더니 배정지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성동구치소로 송치되었다.

양심수들이 많았던 서울구치소에서는 '토토즐'(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의 사회도 보고, 아침마다 구호도 외치고 임수경씨가 들어오던 날은 방마다 환영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 감옥 밖에 많은 학우들이 언니를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반수들만 있고 양심수는 혼자인 성동구치소에 있을 때 언니는 모자란 학점을 채우기 위해 5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사안도 친구를 위해 집시법을 위반한 개인일 뿐이었다. 게다가 시설도 "서울구치소를 호텔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에 다니시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아버님이 시말서를 언니로 인해 계속 쓰시자 평양축전준비위원장 선거유세장에 오셔서 지지연설을 해주시기도 했던 어머님이시지만, "애가 집안 다 말아먹는다."며 일주일 면회금지를 신청했다. 그래서 언니는 "이 시기를 빼고 나를 말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면회금지 일주일 동안 20분의 운동시간 말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수구통으로 밥을 넣어주는 경범죄의 소지들조차 물이나 밥을 넣고는 후다닥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중에 알았지만 여교도소장이 언니를 전염병 환자라고 소문을 냈었다고 한다. 일반수들만 있는 곳에서 관리를 위한 편법이었지만, 언니의 외로움은 커졌고 많이 울었다. 어느 날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소지가 찹쌀도너츠 두 개를 넣어주며 먹으라고 해서 말을 걸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학교 때 같이 임원을 했던 동창이었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장애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간통죄로 걸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다. 그런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어쨌든 그 친구를 만나 '간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면회금지도 풀렸다. 더 이상 독방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되겠다 싶어 소장 면담을 신청했다. 그리곤 "정말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요. 합방 해주면 말썽 안 부리고 형기를 채울께요, 선배님!" 하며 소장이 이대 출신이라는 학연을 이용해 일반수들과의 합방에 성공했다.

당시 유명했던 사건 워커힐도끼 살인사건, 숙대생 유

괴사건 등의 형사범들과의 합방이었다. 언니의 연약해 뵈는 외모와 어마어마한 사건의 주인공들과의 동거가 상상이 안 되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 언니는 그 사람들과의 동거를 통해 인권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양심수들은 그나마 소내에서 양심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똑같은 인간이지만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들은 소내에서까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권에 관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대적 시간은 언니가 출소 후 돌아갈 곳 없는 비조직원의 신분으로 만들었다. 지도나 조직의 선이 있을 때의 안정감이 없는 상태의 괴리감은 컸다. '구속의 경험을 겪고 양심수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고 생각했던 언니는 87년 이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임미애선배가 간사로 있던 민가협을 무작정 찾아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91년부터 99년까지 9년 정도의 시간을 민가협에서 보내고 2~3년은 양심수후원회 간사일을 맡아 했었다. 당시 제약회사 노조위원장이었던 남편과 활동을 하며 딸(김한결)을 키우는 것은 버거웠다. 부부가 함께 활동을 하며 육아 문제에서 놓여 나려면 누군가 다른 여성(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바랄 수 없었던 언니는 9년의 민가협 일을 접었다.

그리고 이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결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 광명사회복지관을 찾아갔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겠다."했더니 담당복지사가 말렸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도 육 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세요."라고. 하지만 그런 말림이 무색하게 언니는 3년을 장애아들과 함께 하루 두 시간씩 보내며 많은 것은 배웠다. 맑은 영혼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흘린 침 냄새에 절어가며.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상도 받았다지만 그 복지관이 일을 참 잘하는 곳이었다고만 한다. 이미지처럼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게 했다.

점심 후 신촌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에서 결혼 얘기를 들었다. 서울구치소 동기가 자기 학교의 열성 운동가를 임수경씨와 언니에게 먼저 나가는 사람 소개시켜주기로 했고, 먼저 나간 언니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둘 다 처음 만난 날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간단 명료하게 결혼스토리가 정리됐다. 지금은 프렌차이즈 학원을 운영하는 부군과 함께 바쁘게 생활전선에서 뛰고 있다.

"한결이가 힘들어 할 때 한결이 곁에 있어줘야겠다 생각했고, 9년을 일했으니 9년 정도 한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흔에는 다시 마음의 빚 남기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겠다고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벌써 마흔을 넘겼네! 그래서 요새 고민이 많았어요. 난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임미애선배를 찾아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더 시간 끌지 않고 곧 누군가를 만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관해 얘기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난 시간들이 많이 정리가 됐네요. 내가 고맙네요."

우리네 들이고 산에서 쉽게 만나는 여린 꽃, 제비꽃이 생각났다. 어느 낚시터에서 찍었던 하얀제비꽃의 봉긋 올라간 두 꽃잎 사이로 수줍게 말린 꽃잎 속에 숨은 수술과 암술의 조화로움처럼 균형이 맞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는데다가 풀 전체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고, 향료로도 쓰인다는 제비꽃. 성실과 겸손, 티없는 소박함의 하얀 제비꽃 같은, 록희언니는 꼭 그런 사람이었다. 균형 잡힌 생각에 자신의 있을 곳, 할 일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성실함, 겸허함을 지닌. 그 향기 오래도록 남길 사람이었다. 간사로 있다가 다른 곳에서 양심수후원회와 마음으로 동행한 지 9년 만에 회원으로 돌아온 언니를 모두 함께 환영해줍시다!

또 하나의 통일공간

장병수 | 범민련남측본부 후원회

벌써 네 번째 산행이다. 몇 달전 615한마음 통일산악회를 준비하면서 걱정도 많았다. 기간 진행하고 있는 범민련 후원회 산악회와 양심수 후원회 산악회, 여러 단체의 산악회들을 하나의 틀에 묶어 잘되면 좋지만 잘못하면 안하는 이 못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회, 두회 산행을 하면서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통일운동에 한생을 살아오신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나에게는 매회가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앞장서서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깃발을 들고 가는 나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진다.

이번 산행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몹시 추워진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 집을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매번 엇나가던 일기예보는 이날따라 딱 맞아 떨어졌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아니었나 싶다.

우이동 그린파크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여느 때 같으면 등산객들로 넘쳐날 북한산 아래는 몹시 추운 날씨 때문인지 몇 안 되는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산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 산악회 깃발을 세우고 한참을 기다리니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추운날씨인데도 굴하지 않고 산행을 사수하신 분들은 연세가 지긋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셨다.

산행 날짜가 옮겨지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30여명의 회원들과 산행을 시작했다. 이번 산행코스는 그린파크를 출발해 할렐루야 기도원을 지나 대동문까지 6킬로미터 정도의 야트막한 오르막이 많은 완만한 탐방로였다.

1시간 정도 산행이 진행되고 잠시 쉬어가는 곳에서는 히말라야 등반을 준비하는 10여명의 청소년들과 인솔선생님이 우리 산행에 관심을 보이면서 깃발을 보고 6.15산악회에 대해 먼저 물어왔다. 통일이란 말이 들어가 통일에 관계된 건지는 짐작이 되나 6.15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았다. 인솔선생님의 부탁으로 산악회 일행 중에 한 분이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 없이 조국을 통일하자는 내용의 선언이 615공동선언이라는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 그전에 함께 배워보았다면서 이북노래 '반갑습니다' 를 선창하였는데 어린 청소년들이지만 참 대견스러웠다.

앞으로도 산악회가 여러 산을 다니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우리 산악회의 몫이 아닌가 싶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산행을 계속하였다. 추운 날씨에 산행이다보니 몇 분의 선생님들이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뒤로 쳐지는 분들도 생겨나고 산중턱에는 바

람이 많이 불어 더 이상 산행이 무리라고 판단해 대동문을 200여 미터 남겨두고 하산을 선택했다. 진달래 능선으로 길을 잡고 하산하기 전 점심을 먹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다. 자리는 협소했지만 각자 준비해온 점심을 꺼내놓고 음식을 나누어먹으며 산행에서 가장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가벼워진 배낭을 메고 배부른 몸을 이끌고 하산길을 서둘러야 했다.

이번 산행에서 가장 아쉬웠다면 산상강연을 하지 못한 것이다. 준비를 못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기온이 자꾸 내려가면 야외에서 1시간가량의 산상강연을 하는 것이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산악회가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6.15산악회가 운동진영에서 면모를 갖추고 대중운동의 한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 회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런 면에서 그동안 산행에 결합하면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나의 모습을 반성하고 산행에 주체적인 모습으로 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6.15산악회를 통해 많은 전망들도 보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정세가 북미대결에서 우리민족이 승리하고 내년이면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처럼 좋아지는 정세에서 6.15산악회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고 힘을 모아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들고 통큰 사업들을 벌려 나갈 수 있는 산악회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좀 서둘러 하산해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4.19기념탑 근처 식당에서 간단한 뒷풀이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 회원들로 식당 안이 가득차고 간단하게 산행 총화의 시간을 갖고 산행에 처음오신 분들의 소개와 산행소감을 간단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일정 때문에 함께 산행을 하지 못하신 권오헌 회장님도 일정을 마치시고 뒷풀이 자리에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하셨다.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얼굴들이어서 뒷풀이는 2차까지 이어지고 간단한 술자리로 그날의 산행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불암산 창립산행을 시작으로 북한산과 도봉산을 오가면서 4차까지 오는 과정들이 앞에서 말했듯이 너무 뜻 깊은 시간들이였다.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고 산에 가서 자연과 함께 산상강연을 듣고 여러 선생님들과 동지들을 만나서 도시락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을 나와 몇몇의 회원들의 즐거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

내년 5월에 백두산 관광도 현실화된다고 하니 민족의 시조산인 백두산에 많은 회원들과 함께 6.15산악회의 깃발을 들고 민족의 정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천지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알립니다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일　시 : 2007년 1월 8일 (화) 늦은 6시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작 품 명 : 새령마루에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2005년 제작, 83분 상영)

■줄 거 리 : ••어느 한도의 지방공업 관리국 일군이 실리에 맞지 않는 편직 광장의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입에 의존하던 편직기 (캄)을 새롭게 우리식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이다.

※문의_ 한찬욱(016-235-5631)

*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하고 계신 구속노동자,양심수 동지들께

20일 가까이 진행된 동지들의 옥중 투쟁은 위대했습니다. 감옥이란 통제된 공간속에서 아름아름 일궈 낸 투쟁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12월 3일이 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투쟁에 동참하시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2월 2일 "구속노동자 공동행동"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새롭게 투쟁에 돌입한 동지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되신 장민호, 이진강, 이정훈, 손정목 동지(서울구치소), "오산 수청동 철거반대 투쟁"으로 구속되신 성낙경(장흥), 김정덕(경주), 김학명(홍성), 정창윤(장흥) 동지들께서 12월 3일부터 단식투쟁을 전개하셨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저희들은 뒤늦게야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쟁은 구속노동자 동지 24명을 포함해서 32명의 양심수 동지들께서 함께 진행하신 '민주화' 이후의 최대 양심수 옥중단식 투쟁이었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소식이 알려지자, 바쁜 대선국면이었지만 여러 단체에서 〈한겨레 신문〉 의견광고에 동참해 주었고, 그동안 개최된 기자회견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은 12월 3일 청와대 앞, 광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앞에서 12월 6일에는 청주교도소, 12월 7일에는 영등포구치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포항건설노조 구속노동자 동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포항건설노조 동지들이 계신 김천, 마산, 경주, 진주, 안동 등을 오가며 순회 기자회견 투쟁을 열성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AWC 일본위원회 동지들의 연대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이번 투쟁에 대해 법무부 당국은 적잖이 긴장하는 눈치였고, 청와대 비서실도 일정 부분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정치적 경향도 다를 수 있겠지만 동지들께서는 오로지 감옥에 묶여 있는 구속노동자, 양심수라는 연결고리 하나로 공동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일사 분란하게 투쟁을 전개하셨습니다. 이런 투쟁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던 연대투쟁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이제 이번 옥중 투쟁의 의미와 성과들을 되새기며 투쟁을 갈무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지들의 투쟁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은 내뱉지 말자고 말입니다. 겨울 감옥에서 옥중단식 투쟁 전개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는 저희들이 동지들의 투쟁결의를 이어 받아 더욱 더 열심히, 모든 양심수 동지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힘껏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하루 빨리 단식으로 소진된 몸을 회복하셔서 추운 겨울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소내 환경개선 요구를 함께 제기하고 계셔서 옥중 단식을 쉬 마무리하시기 어려운 동지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십시오! 달려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2007. 12. 7(금)/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 ·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이광 열 올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진강입니다.

저희 일심회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된 지 어느새 일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 관심과 애정 속에 영치금과 민족 21, 소식지 등을 받으면서도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간단없는 활동과 노고에 대하여는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민가협양심수후원회의 한결같이 지켜온 헌신성을 되새기면 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보내주신 '구속노동자공동행동' 의 옥중연대투쟁 계획 논의 및 의견에 관한 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곳 서울 구치소의 상황은, 일심회관련 구속자 중 애초부터이곳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동료분들(이정훈 손정목 박경식)은 B관구에 계시고 상고 이후 이감되어온 저와 최기영 장민호 동지는 A관구에 수감되어 있는 바 구치소측의 격리방침이 철저하여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번 공동행동 방침에 대한 논의와 결의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어서 개별적으로 결의하고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도 '구속노동자공동행동' 의 권고 방침에 따라 12월3일 연대단식투쟁에 참여함을 이렇게 서신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면복권투쟁은 본래 대중투쟁이고 대중적진출로 조성된 정세의 성과물인 것인데, 민가협 등 제단체들이 작금의 어려운 정세 속에서 사면복권투쟁의 활로를 열어가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언제나 동지들을 굳게 믿고 연대의 힘을 다지고 축적하는 속에 승리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로 건투를 다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7년 12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이 진 강올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회장님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뒤늦게나마 '구속노동자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의 활동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민족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공동행동의 투쟁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곳 교도소 당국의 통제가 매우 심하여 동료들과 의견 교환이 어렵습니다.

'공동행동' 의 적절한 조처와 후속연락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권오헌 회장님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2007년 11월 29일 장민호 올림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 2008년 신년 산행

1. 제 목 :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 2008년 신년 산행〉
2. 장 소 : 금강산　3. 일 시 : 2008년 1월 5일 – 6일
4. 신천마감: 2007년 12월22일까지

비용 산출 근거

♦기본비용(170,000) +점심2식(20,000) +옥류관 저녁(30,000) = 총 220,000
–기본비용 내용 (1박1식)
●관광비 포함내역 : 숙박, 명승지 관람료, 가이드 비용, 금강산내 차량이용비, 남측, 북측 출입사무소 수속비, 여행자보험
●관광비 불포함 내역 : 출발지~남측출입사무소까지 교통비, 남측에서의 식대, 금강산 내에서의 점심, 저녁 식대, 금강산 온천, 교예단 공연, 가무단 공연, 오후 삼일포 관광 등 옵션 관광비.

– 기타 비용 –
●금강산관광비에는 서울에서 화진포아산휴게소까지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화진포아산 휴게소까지 직접 가시거나셔들을 이용하실 경우, 1인당 왕복 30,000원의 교통비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별도비용 : 5일 아침 집결시 아침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24개월 이하 80,000/ 만2세이상~미취학 100,000 / 초등학생 : 130,000원 / 중, 고등학생 : 150,000원 (식사, 공연관람 등은 비용을 내야 함)

전체일정

	시간	장소	전체비용 포함	개별부담
첫째날 (5일)	06 : 00 ~	현대아산 휴게소 집결(고성)		
	07 : 00 ~	수속, 남측CIQ출발		
	08 : 00 ~ 09 : 00	온정각 도착		
	09 : 20 ~1 2 : 00	구룡연 산행		
	12 : 00 ~ 15 : 00	목란관 점심식사 식사, 셔틀버스로 이동, 하산	10,000원	
	16 : 00 ~ 18 : 00	교예단 공연 관람및 자유시간		30,000원
	18 : 00 ~ 21 : 00	옥류관 저녁 식사 및 행사	30,000원	
	21 : 00 ~ 22 : 00	금강산 예술소조 공연 관람		10,000원
	22 : 00 ~	개 인 시 간		
둘째날 (6일)	06 : 30 ~	기　상		
	07 : 00 ~ 08 : 00	아침 식사(현대 제공), 온정각		
	09 : 00 ~ 12 : 00	수정봉(또는 만물상)		
	12 : 00 ~ 13 : 00	점　심	10,000원	
	13 : 00 ~ 14 : 30	온　천		10,000원
	14 : 30 ~ 15 : 30	개 인 시 간		
	15 : 30 ~	이동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7년 11월 27일 총 76명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 량	만기 일	수감 지	가미결
박은진	노동자	건설기계노조(순천)	노조활동 관련	2007.6.26	업무방해	10월	항소중	광주교 3319	미결
정수용	노동자	건설기계노조(순천)	노조활동 관련	2007.6.26	업무방해	1년	항소중	광주교 3302	미결
전남수	노동자	건설기계노조(순천)	노조활동 관련	2007.6.26	업무방해	8월	항소중	광주교 3340	미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1.09	마산교 2053	기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1.09	진주교 9	기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1.09	안동교 1138	기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1년6월	1.08	포항교 3079	기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3년6월	1.10	김천교 709	기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1.09	김천교 631	기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1.09	경주교 410	기결
정승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1.09	마산교 1934	기결
구권서	노동자	공공서비스노조(서울)	경북칠곡 환경미화원 파업(05)	2007.7.13	업방,집시	1년	항소중	대구교 25	미결
남택규	노동자	금속노조	한미FTA반대 파업	2007.10.24	업방,특공			영등포구 3404	미결
허재우	노동자	금속노조(경남)	한미FTA반대 파업	2007.10.24	업방,특공			마산교 707	미결
손태용	노동자	금속노조(기아차 광주)	한미FTA반대 파업	2007.10.24	업방,특공			광주교 3308	미결
김상구	노동자	금속노조(기아차)	한미FTA반대 파업	2007.11.13	업방,특공			수원구 309	미결
김희준	노동자	금속노조(만도기계)	한미FTA반대 파업	2007.10.15	업방,특공			평택구 201	미결
김유신	노동자	금속노조(현대차 아산)	한미FTA반대 파업	2007.10.16	업방,특공			천안구 2072	미결
박명수	노동자	뉴코아 노조	이랜드 파업	2007.11.20	업방			안양서	미결
이경순	노동자	망향휴게소 노조	노조활동 관련	2007.11.16	업방,특공			천안소 45	미결
이군봉	노동자	민주노동당	이랜드 불매집회 관련	2007.11.2	업방,집시			영등포구 3435	미결
양일석	노동자	민주노동당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1.11	집시,특공			서울구 131	미결
조민호	노동자	민주노동당	이랜드불매 집회관련	2007.11.7	업무방해			성동구 13	미결
정희성	노동자	민주노총(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7.4.30	집시,공방	1년6월	상고중	광주교 3313	미결
송종찬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1.11	특공,집시			대구교 24	미결
박종갑	노동자	민주노총(대전)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7.3.16	집시,공방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593	미결
윤병일	노동자	민주노총(성남)	파주축협 관련	2007.8.8	업방,집시			의정부교 1049	미결
이채위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비정규직 해고반대(울산 홈에버)	2007.9.21	업무방해			울산구 미결	
최용우	노동자	민주노총(충남)	한미FTA반대 파업	2007.10.27	업방,특공			천안구 2172	미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8.17	집시	2년	상고중	대구교 22	미결
안병문	노동자	부천일반노조	파업(비정규직 해고반대)	2007.7.29	업무방해	6월	항소중	영등포구 3411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2.22	명예훼손정통법	3년+2월+6월	10.08	영등포교 13	기결
박문규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반대	2007.11.21	특공			안양서	미결
이호성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	낙하산 인사반대	2007.11.21	특공			안양서	미결
김대천	노동자	전국농협노조(대경)	파업(부산)	2007.10.29	업무방해			부산구 6011	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9.19	폭력	1년+1년6월	1.09	원주교 222	기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9.19	폭력	1년6월	추가기소	영등포구 3402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박상표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경기남부)	파업	2007.7.23	업방,집시	1년6월		영등포구 3408	기결
정민호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광주전남)	파업	2007.7.23	업방,집시	1년6월	항소중	영등포구 3409	미결
장승호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대전충청)	파업	2007.7.23	업방,집시	1년6월	항소중	영등포구 3406	미결
김명욱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서울경기)	파업	2007.7.23	업방,집시	1년6월	항소중	영등포구 3407	미결
강윤복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인천)	파업	2007.7.23	업방,집시	1년6월	항소중	영등포구 3410	미결
조순동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2007.10.22	업방,특공			천안소 2197	미결
정영철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2007.10.31	업방,특공			천안소 2193	미결
김태원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2007.11.8	업방,특공			천안소 2014	미결
박정태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2007.11.8	업방,특공			천안소 2106	미결
이병식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2007.10.31	업방,특공			천안소 2007	미결
임광호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관련	2007.10.31	업방,특공			천안소 2129	미결
정창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2007.11.19	업방,특공			천안경찰서	미결
이진호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관련	2007.10.27	업방,특공			천안소 2035	미결
위두환	농민	전농(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6.11.26	집시,폭력	1년6월	6.08	장흥교 50	기결
정재훈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7.5.22	병역법	1년6월	12.08	영등포구 2542	기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4년	상고중	서울구 113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7년	상고중	서울구50	미결
박 철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11.7	병역법	1년 6월	5.08	영등포구 2426	기결
김 익	재야	개인	이적표현물	2007.7.9	국보			서울구 89	미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2.1	국보	3년6월	항소중	서울구 151	미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5.08	광주교 5009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	상고중	서울구62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6월	상고중	서울구치소	미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2006.10.23	국보	2년 6월	5.09	전주교 2500	기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국보	3년	상고중	서울구 109	미결
김양호	재야	민주노동당(대전)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7.1.3	집시,폭력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1911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화염병,치사	3년	6.08	안동교 15	기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화염병	3년	6.08	홍성교 200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5.3	화염병,치사	6년	5.09	장흥교 11	기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화염병	3년	6.08	경주교 500	기결
김도형	재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8.25	병역법	1년6월	2.08	영등포교 906	기결
김치수	재야	한국사회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7.9.13	병역법			서울구 3498	미결
허 연	재야	한국진보연대(광주전남)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1.21	집시,특공			광주교 3306	미결
박석운	재야	한미FTA반대범국본	한미FTA반대 집회 등	2007.10.9	집시,특공 등			서울구 47	미결
주제준	재야	한미FTA반대범국본	한미FTA반대 집회 등	2007.10.9	집시,특공 등			서울구 61	미결
유정민석	학생	동국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7.8.17	병역법	1년6월	2.09	여주교 1535	기결
송인욱	학생	서울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11.23	병역법	1년6월	5.08	영등포교 907	기결
박경수	학생	성공회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12.14	병역법	1년6월	6.08	성동구 1974	기결
오주성	학생	전남대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1.11	특공,집시			광주교 3305	미결

01

명동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통일뉴스 창간 7주년 기념식'을 갖다. 이 자리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30여 명이 참석해 민족일보와 통일뉴스의 만남을 축하하다. 통일뉴스 고문인 노중선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의 여는 말, 민족일보사 전 기자였던 전무배, 김자동선생의 소회말씀, 두 분과 함께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의 동생 조용준씨가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와 기자들에게 민족일보 영인본을 증정하는 의식이 있었음. 이어 이계환 대표의 기념사, 정일용 기자협회 회장, 박중기 후원회장의 축사, 북측 '조선륙일오편집사'의 축사 낭독, 이기형 시인의 축시 낭송, 노래패 '우리나라'의 축가 등이 있었음. 이 자리에는 6.15남측위 백낙청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공동위원장, 범민련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 이규재 의장, 평통사 홍근수 상임공동대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최병모 이사장, 한국언론재단 정남기 이사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등 각계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다.

서초동 법원 앞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학생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폐지와 박준의 당원 즉각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민주노동당원과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함께 하고 박준의 정책국장 가족들이 함께 한 가운데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의 여는 말, 민주노동당 김동원 자주통일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 학생위원장의 석방촉구 발언, 박준의 아버님의 가족 인사말 등이 있었음.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안동범 판사) 심리로 한총련 배후조정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리다. 검사는 박준의씨가 북의 주장을 동조했다면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하다.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보안수사대 등 막대한 예산으로 통일애국청년학생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무죄선고를 요구하다. 박준의씨 또한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존립명분이 없다며 북과 관련 문건소지가 찬양·고무·동조 행위가 아니고 집회 등 참가는 합법적 활동이었음을 강조하다.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9층 회의실에서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대표자 보고대회가 열리다. 과거청산 법국민위 활동경과 보고, 과거청산 관련 국가기구 동향보고, 과거청산법국민위원회 재정보고 등이 있었고 논의안건으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2기 활동계획안을 심의채택하다.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회의실에서 한국진보연대 2차 대표자회의를 열다. 전차 회의결과보고, 출범식 및 민중총궐기 선포대회 보고, 2007범국민행동의 날 추진보고, 각 위원회별 사업보고, 재정보고 등이 있었고 논의안건으로 창립대표자 회의, 이월사항 처리안건에서 공동대표 추가선임의 건(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청대표를 공동대표로) 승인,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사업점검 및 후속계획 논의의 건, '대전환기(통일시대) 진보운동의 혁신과 발전전략연구' 사업계획안 등 토의 채택하다.

제63차 유엔총회는 현지시간 10월 31일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총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이 'Corea 반도결의안'은 첫 번째 의제로 상정 남북대표의 제안설명에 이어 포르투칼(유럽연합 대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베트남, 예멘 등 24개국 대표의 지지발언과 사무총장 연설을 들은 뒤 표결 없이 총회결의로 채택하다. 남북이 공동발의한 'Corea 반도에서의 평화·안전·통일에 대한 결의문'은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환영 지지 ●이번 선언의 충실한 이행권고 ●남북간 대화와 화해 및 통일과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지원요청을 골자로 하다.

02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공소시효 배제특별법제정연대 공동주최, 잉여순, 천영세의원실 후원으로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야만의 시대를 끝내라"'가 진행되다. 민주노동당 황선부대변인 사회로 권오헌 국가보안법폐지연대 공동대표의 대회사, 이명남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의 인사말, 국가보안법 잔혹사의 시대별 영상 상영, 피해자 및 유족증언에서는 50년대 조봉암진보당 사건, 60년대 조용수 민족일보사건(조용준), 80년대 아람회 '오송회' 사건(강정기, 박래전) 사례 발표가 있었음. 이어 지민수씨의 노래공연,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의 작품 슬라이등 상영이 있었음. 이어 '이적 굴레를 벗어던지자'에서는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과 경기대 정준모 총학생회장이 범민련, 한총련 탄압사례를 발표하다. '희망새' 노래 공연에 이어 마지막으로 선언문을 김은주, 송연아, 구선옥, 김정란, 이시우씨 등 국가보안법관련자와 가족들이 함께 낭독하고 노래 공연이 이어지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 받은 바 있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학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바 있는 이주희씨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협) 소속 노점상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점상 생존권 말살, 반민생정당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열다.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심호섭의장, 서울

지역 가판점 총연합 라주봉의장, 전노련 서울송파지역장 등이 발언에 나서 이근재동지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한나라당 소속 시장과 구청장들이 서민복지비를 용역깡패를 사는 데 쓰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규탄하다.

03~04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7 회원역사기행 '충남 예산, 서산, 홍성 지역 역사문화유적을 찾아서'가 11월 3일 4일 에 걸쳐 진행되다. 첫 날은 예산지역의 추사 김정희 고택, 윤봉길의사 영정을 모신 충의사 등을 참관하고 저녁에는 양재혁 전 성균관대학교수의 강의가 있었으며, 다음 날은 수덕사답사, 덕숭산등정이 있었으며 서산지역 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을 참관했음. 다시 홍성으로 옮겨 홍주읍성, 홍주의사총(600의총), 홍주이문, 안회당, 여하정 등을 답사하고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와 기념관을 참관하다. (후원회 소식 193호 보심)

03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2007남북정상선언을 지지, 환영하는 '남북해외청년학생 공동실천기간'을 선포하다.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 상임대표 박법수)'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종각역 제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6.15 북측위 청년학생분과위원회(위원장 김경호)'와의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선포문을 발표하다. 선포문은 먼저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이념인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2007 남북정상선언의 지지대열을 광범위하게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히다.

6-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규탄하는 집회가 오후 4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열리다. 한국진보연대 정용준 반전평화국장평택범대위의 사회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의 여는 말, 유영재 '평화와통일을만드는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주병준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래군 집행위원장,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 등의 결의 발언이 이어지다. 한국진보연대, 평택범대위, 민주노총, 평통사, 사회진보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150여 명 참가 함께하여 작전통제권 완전환수,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군산제주 군사기지 건설반대,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반대하고, 국방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간띠 잇기'를 하는 것으로 오후 5시경 마무리하다.

현대그룹과 이북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해 백두산 관광을 시작키로 합의했다고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언론들이 밝히다. 양측은 이와 함께 현대그룹이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사업권을 갖고 내달 초부터 개성관광을 시작한다는 데도 합의하고 백두산과 개성관광 실시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취하기로 하다.

04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 오종렬 등)'는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2007 범국민의 날 조직위원회 대국민 메시지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행동 지침을 발표하다. 메시지는 오는 11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행동집회, 6시 미대사관앞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고, 11대 민중의제로는 ○ 한미FTA 저지, 광우병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 레바논 파병군 철군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쌀값 보장농가부채 해결 등 11가지이다.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문경식 전농의장 등의 결의발언이 이어지다. 이보다 앞서 국민행동의날 조직위 대표자회의에서는 대국민메시지 내용을 토의 채택하다.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는 6-7일, 장외에선 '전시작전통제권환수가속 빈 강정'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각종 집회 및 촛불행사 등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홍근수, 문규현 평통사 상임공동대표,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승호 한청 의장, 최사묵 평화군인재향회 공동대표, 안기천 금융노조 대외협력본부장 등 각계인사 2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주장을 담은 '1만인 선언'을 발표하다.

05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3보 1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 국회가 끝나는 23일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12~13시) 3보 1배를 계속하기로 하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여는 말,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결의발언과 권오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회견을 마치고 한총련 학생 등 참가자들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청와대 쪽으로 3보 1배를 진행하다. 그러나 국회로 가는 길을 경찰이 가로막고 고착시켜 그 자리에서 3보 1배를 계속하다.

06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5일부터 23일까지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3보1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낮 12시 20분경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3보 1배를 마치고 정리하던 도중 2명의 수배자가 연행되다. 연행된 수배자는 2002년도 당시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나진숙씨 (97학번)와 2003년도 당시 서울산업대 부총학생이었던 홍기웅(99학번)으로 3보 1배를 마치고 정리집회 도중 연행되다. 나진숙씨는 8개월 된 아들과 함께 나왔다가 연행 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나진욱씨는 광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날 밤 풀려났으며 홍기웅씨는 노원경찰서, 황순원 국보연대집행 간부는 영등포경찰서 연행, 조사를 받고 있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공동대표 문규현,홍근수) 회원 3명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의 방한을 규탄하고, SCM을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중부경찰서로 연행되다.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이하 군의문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대내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뒤 사망한 진정 사건들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월 18일 국방부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나와 주목되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1976년 해병 방위 훈련 직후 사망한 정상복 사건과 1981년 훈련소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선태사건 등 모두 5건이다.

0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김원웅)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제철거 위협에 시달리는 우토로 동포들을 위한 지원금 30억 증액을 결정하다. 지구촌동포연대(KIN)측은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으며 우토로 동포들과 우토로국제대책회의 등 한일 지원단체 등은 긴장감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민족일보 사건(조용수사장 사법살인사건) 재심 6차 공판이 열리다. 이날은 민족일보 사건에 연루 5년 옥살이를 했던 양일근씨에 대한 검찰의 직접심문과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6일 국가보안법 폐지 3보 1배를 하다 강제연행된 2002년 서울산업대 홍기웅 부총학생회장을 노원경찰서로 면회 다녀오다.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7년이나 정치수배를 당해 왔었음. 조사는 다 받은 상태였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음. 늦어도 내일까지는 풀려날 것으로 담당 수사관 면담에서 밝혀졌음.

일본 도쿄 주오대학 스루가다이 기념관에서 남측과 재일동포가 함께 하여 남북수뇌회담 개최기념 조국통일 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 주최로 '남북수뇌회담 개최기념, 조국통일토론회'가 열리다. 재일동포 등 4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배안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사회로 공동대표 박수길목사가 10.4선언을 낭독하는 것으로 토론회가 시작되다. 실행위원회 함박위원장의 개회사, 재일동포 김민하 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의 기조발언이 있었고 토론에서는 남측의 한국진보연대 한상렬공동대표의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연 2007 남북정상회담',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최병모 이사장의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평가와 과제' 등 발제가 있었으며, 이어 재일동포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해외동포와 10.4선언'이란 발제가 있었고 이어 질의응답 형태의 토론이 이어지다.

한미 양국간 군사적 현안들이 다루어지는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이 국방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지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변 미군위, 민교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3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과 공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는 계획조차 없는 점을 규탄하고 대북적대기구인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가 이날 39차 SCM 회의는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양국 긴밀협력 - 한미동맹지속 강화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에 동의 - 더욱 긴밀히 협조 ●이북의 대량 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확산 위험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 ●주한미군 주둔이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 안정을 보장하고 미국은 핵우산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공약과 지원 보장 ● 2008년 이후에도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협의 지속 ●한미동맹-미래 양국이익에 긴요,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확고한 연합방위체제 유지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 지속 강화한다. ●전시작전통제권-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는데 확인 - 양국 노력으로 전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유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될 것임과 한국이 충분히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상당한 지원전력제공 확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통해 수립될 한국주도- 미국지원의 지휘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시킬 것임. ● 한미합의 정전관리 책임조성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전에 완료하기로 합

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이 진전되고 있음을 만족하고 계속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직도 사격장 현대화 완료, 한미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에 기여함 주목-앞으로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합의, ●07-08년 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타결 만족하며 방위비 분담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함을 평가, 양측은 현행방위비 분담제를 개선하기로 합의, ●한국의 FMS(대외군사판매) 지위 향상이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 증대 및 한미연합방위력 제고에 기여할 것에 유의, 지난 7월 미의회에서 발의된 한국의 FMS 지위향상 관련법안에 강력지지 표명, ●SCM분과위원회(안보협력위원회-SCC,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군수협력위원회-CCC)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국간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 관련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내년도에는 전쟁비축물자협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에 보고토록 권고하다. ●양장관은 제39차 SCM과 제29차 MCM의 동맹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지향점,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고 제40차 SCM을 2008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함. (이 합의는 6.15 공동선과 10.4 정상합의에 반하는 침략적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임)

08

10월 8일 긴급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 주제준 사무처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이영 민가협 대표의 여는 말, 한국진보연대 김지현 조직국장이 한미FTA 체결 경과와 문제점, 박석운, 주제준두 동지의 수배와 구속 과정에 대한 보고 발언, 구속된 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의 부인 석원정씨의 조속한 석방을 호소, 이어 권오헌 공동의장의 한미FTA 비준반대와 박석운 주제는 석방촉구발언과 박영옥회원의 석방촉구 결의문 낭독으로 684번째 목요집회를 마무리하다.

대방동 여성프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송경용씀 '사람과 사람' 출판기념회가 열리다. 사전 행사로 푸른영상제작 '상계동 올림픽' 상영이 있었고, 출판사 '생각의 나눔 대표 박광성씨의 책이 나오기까지 이야기에 이어 대한성공회 관구장 박경조주교님, 성공회대 총장이신 김성수주교님, 김혜경 전 민주노동당 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 축사가 있었고 박노해시인의 축시 낭송, '송경용신부와 사람들' -영상, 성공회대교수 중창단의 축하노래 등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송경용신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등 인사말과 함께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말하다. -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안병길, 김호현, 권오헌 함께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주관 '2007겨레 하나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려 자원사업을 넘어 개발협력 사업에 나설 것을 다짐하다. 150여 명의 회원과 후원자 함께 한 가운데 가수 노정렬씨 사회로 최병모 이사장의 여는말, 김성훈 후원회장의 인사말과 시낭송, 백낙청 6.15 남측위 상임대표 축하말이 있었음, 이어 겨레하나가 실천해 온 사업내용의 영상상영, '리듬과 씨어터' 의 타악기공연, 아리수의 토속민요공연 등이 있었음.

09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대국민보고회' 를 갖다. 친일인명사전 편찬과정은 1단계 기초작업, 2단계 수록대상자 선정, 3단계 집필, 4단계 출판에 이른다고 하다. 첫 출판은 2008년 8월에 이루어지고 편찬현황을 수록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편찬취지와 목적, 수록대상을 정하고 수록대상으로는 ①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②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③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④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⑤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으로서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등으로 구분하다. 보고대회에 이어 임종국선생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3회 임종국상 시상식이 있었음. 제3회 임종국상 수상자는 학술부문에 이재명 명지대문예창작학과 교수, 언론부문에 길윤형 한겨레 21기자가 선정되어 수상하다.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지난달 21일 경찰의 노점상 폭력탄압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숨진 고 이근재 노점상 장례식이 열리다. 유족들과 전노련회원, 시민사회단체 성원 등 500여 명이 함께하여 오종렬 진보연대 공동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전빈련 김흥현 의장 등 추도사가 있었고, 고인이 평소 노점을 했던 문화초등학교 앞까지 노제를 지내고 고양시 도내동 고양시립 묘지에 안치하다.

10

민주노총조합원 시민사회단체 성원 등 4,000여 명이 마포 상암 월드컵 경기장 홈에버 매장 주변에서 '홈에버 매장 폐쇄 및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를 진행하다. 노동자들은 전야제가 시작되기 전 매장폐쇄투쟁을 벌이고 경기장 앞 도로를 점거 '박성수 사장 구속', '비정규직 철폐' 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을 때 경찰의 폭력 해산으로 충돌, 부상자가 속출하다. 노동자들은 홈에버 매장영업이 정리되자 10시경 경기장 북문 앞에 설치된 무대쪽으로 옮겨 전야제를 진행하다.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결의발언과 문예공연 등이 이어지다. 11시 40분쯤 '파업가' 를 부르며 전야제를 모두 마치다. 이보다 앞서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봉쇄 규탄, 평화집회 보장촉구 기자회견' 을 열고 정부의 집회 보장을 거듭 촉구하고 항의서한을 청

와대에 접수시키다. 조직위원회 대표들은 11일 오전까지 철야농성에 들어가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의 집회 원천봉쇄에 항의 철야농성에 들어가다.

11 ----------

'11.11 범국민행동의 날' 시위가 본 행사에 앞서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다. 한총련 등 대학생 500여 명은 11시 6호선 광흥창역에 모여 창전 4거리-이랜드 본사 앞 행진, 이랜드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등을 규탄하는 약식 집회를 갖고 신촌로터리-이대 앞까지 행진, 지하철로 시청 대회장으로 이동하다. 전빈련·전노련 등 빈민대오 3,000여 명은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빈민대회를 열고 시청 쪽으로 이동했고, 전국공무원 노조원 1,000여 명은 훈련원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쪽으로 행진하다. 12시 경 남대문 주변에 모였던 노동자·농민·청년 학생 등 4,000여 명은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태평로를 점거 시청 쪽으로 행진했고 한국은행 앞에서는 빈민·청년학생 민주노동당원 등 10,000여 명이 8차선 도로를 점령, 시청 쪽으로 이동하다. 경찰은 230개 중대 20,000여 병력으로 시위에 대처하며 대형 경찰차로 시청 앞 광장을 완전히 둘러싸다. 시내곳곳에서 부문집회를 마친 대열 30,000명이 시청 남단에서 남대문까지 도로를 꽉 메우며 먼저 농민대회가 열리다. 문경식의장은 '한미 FTA 저지와 쌀값 보장을 위해 10만 대회를 준비했으나 지방에서부터 원천봉쇄 당해 못올라왔다'며 대선전에 10만이 모이는 '농민대회'를 다시 열겠다고 하다. 농민들은 농가부채 탕감! 쌀값보장! 등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이다. 2시 40분 40,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평로에서 '노동자대회'가 열리다.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 '원천봉쇄를 뚫고 우리는 승리했다', '노동자가 주인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결의대회사를 하다. 문경식농민회장의 연대사, 임승규 공공연맹위원장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노동자대회 사전행사로 전태일노동자상 시상식에서는 구속 중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을 대신해 부인 임경옥씨가 대신 받다. 3시 30분 국민행동의 날 본행사가 한충목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대회사,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연설하다. 권 후보는 '신자유주의 박살내고 노동자·농민·빈민이 주인 되는 민중대통령 되겠다'고 결의하다. 본 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일부는 서소문 쪽으로, 일부는 남대문로 쪽으로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미대사관 쪽으로 이동하다. 경찰은 시청 앞 광장과 미대사관 일대를 경찰차로 철벽바리케이트를 치고 헬리콥터 2~3대가 계속 저공비행하며 시위대열을 위협압박하다. 미대사관 쪽으로 이동하는 곳곳에서 경찰의 폭력 제지로 부상자가 잇따르고 추운 날씨임에도 물대포를 쏘아대다. 시민 이순기씨는 경찰의 폭력으로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농민 한 명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하다. 안국역 부근에서는 부산건설 노조원 박광기씨가 경찰 폭력으로 안면부위가 함몰되는 중상을 당하다. 저녁 6시 쯤 광화문 네거리에서 30,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를 열다. 전농 문경식의장, 전빈련 김홍현 의장,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 전교조 정진화위원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상징의식으로 성조기를 불태우다. 성조기에는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써 있었음. 12월 1일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며 8시쯤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모두 마치다. 이날 125명이 경찰에 연행되다.

12 ----------

내자동 서울 경찰청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평통사 회원 폭력 연행 책임자 처벌, 서울경찰청장 공식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지난 6일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던 평통사회원을 폭력으로 강제 연행하고 연행과정에서 목을 꺾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질식사 위협 행패를 자행했었다고 하다. 유한경 등 피해자사례발표, 김종일사무처장 규탄발언, 권오헌양심수후원회장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으며 항의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접수시키다.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집회금지, 원천봉쇄 규탄, 조직위 향후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당국의 집회금지 처분, 원천봉쇄, 폭력진압 행패를 규탄하고 오는 12월 1일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반전평화를 기조로 한 제2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고 밝히다.

남북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오는 27~29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히다. 실무회담에서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이행 군사적 대책'이란 의제로 대표단 규모와 이동경로, 세부일정 등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다. 남측에서는 문성욱 대령 외 2명이, 북측에서는 박림수 대좌 외 2명이 대표로 함께하다.

13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송기인)'은 13일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2007년 유해발굴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400여구와 1,085점의 유품을 발굴했다고 밝히다. 유해발굴 현황과 관련, 진실화해위는 구례 봉성산에서 유해 12구, 대전 산내 골령골 일대에서 유해 34구, 청원 분터골에서 유해 110여 구,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유해 240여구를 찾아냈다고 밝히다.

오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송기인)'는 제58차 전원위원회에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실규명을

발표하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유서에 대해 '강기훈 씨의 필적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하다. '강 씨가 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 자살을 방조했다'는 당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간첩사건과 1981년, 1986년에 각각 발표된 이헌치, 김양기 간첩사건 등이 불법장기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으로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히다.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평택범대위, 양심수후원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제98차 반미연합집회를 열고 성토비 55%, C41이전비 60% 등 미군기지 확장 건설비를 한국정부에 부담시키고 있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기공식을 중단하라며 주한미군 즉각 철수를 촉구하다. 한편 평택 팽성읍 대추리에서 김장수 국방장관 벨 주한미군사령관 버시 바우 주한미국대사, 김문수 경기도 지사, 송명호 평택시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미군기지 기공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 도두리에서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성원, 평택범대위 소속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여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집회를 열고 주한미군의 철거를 촉구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한용부장판사) 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존립되어야 하고 이북은 대법판례에 있듯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강교수의 2001년 평양통일대축전 참가시 3대헌장기념탑에 간 사실과 김일성주석 고향집 방문하여 방명록 글과 문제된 논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북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항소요구를 모두 기각하다. 재판이 끝나고 방청인들 법원 계단에서 정리집회를 열고 황두환, 김종일, 권오헌 등 유죄판결을 규탄하고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결의발언이 있었고 강정구교수의 인사말이 있었음.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와 학문의 자유 수호, 강정구 교수 탄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하다.

14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대표해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임기란 민가협 전 의장,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 한용진 사무총장 등은 함께 차성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면담하고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사면, 정치수배해제, 보안수사대해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하다..

워커힐호텔 1층 무궁화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 회담 첫 전체회의'가 열려 북측 단장과 남측 수석대표의 기조발언이 있은 다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사업', 개성공단사업, 조선협력사업, 개성 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주의 사업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밝히다. 저녁 7시에는 '그랜드홀'에서 남측 한덕수수석대표 주재로 환영만찬이 진행되다. 양측 대표단과 남측경제협력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덕수총리의 환영만찬사와 김영일 내각총리의 연회연설이 있었음.

후원회 소식 193호 최종 교정을 보아 창미디어에 넘기다.

15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85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권오헌 공동의장의 여는 말, 안지중 진보연대 상황실 일꾼의 11.11 국민행동의 날 원천봉쇄 규탄발언, 강정구교수 대책위 일꾼의 사례발표, 임기란 전상임의장의 강기훈 조작사건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 소식 193호' 발송 작업이 있었음. 모성용, 나순석, 이봉주, 김영식선생님, 문상봉선생님, 송지영 함께. 국내 1002부, 해외 13부 발송하다.

남북총리회담 이틀째를 맞아 각 분야별 대표 접촉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오후에는 남북대표단이 용산국립박물관을 방문, 김홍남 박물관장의 안내와 설명으로 고고관실, 미술관, 어린이 전시실, 상설전시실 등을 참관하다.

16 ----------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주최로 '경찰 당국의 2007 범국민행동의 날 탄압사례 발표 및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공동대표의 여는 말, 문경식 전농의장, 김흥현 전빈련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이 국민행동의 날 집회 불허와 출발지 봉쇄, 고속도로 진입봉쇄, 수도권 지하철역 검문, 원천봉쇄 조치와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도로 차단, 헬기위협 물대포 살포, 폭력진압 등 시위 방해 행패를 고발하고 규탄하다. 윤금순 여성연대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 3일째 종결회의를 열어 '제1차 남북(북남) 총

리회담 합의서'와 '서해평화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합의서',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합의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다. (총리회담 합의서 요약)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북남) 총리회담 합의서' 제1조 남과 북(북과 남=이하 같음)은 6.15 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조치 적극 취하기로 하고, ○ 6.15민족공동기념일 추진 ○ 6.15 8돌 기념 서울개최, 당국 민간 함께 ○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 양측 의회 등 각 분야 대화 재촉 활성화
제2조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함 (10개 항목 생략)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함.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5개 항목 생략) 2) 조선협력단지 건설(5개 항목 생략) 3) 개성공단 건설(8개 항목 생략) 4) 자원 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6개 항목 생략) 5)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2개 항목 생략)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다. (4개 항목 생략) 제5조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개 항목 생략)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발생시 상호통보 및 피해확대방지조치, 동포애와 상부상조 원칙에서 피해복구 협력, 제7조 남과 북은 총리 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고 제2차 총리회담을 2008년 상반기 평양에서 개최하다. 제8조 수정 및 발표 (2개항 생략)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은 생략함.

'10.4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마지막날, 북측단장 김영일 내각총리 등 대표단은 청와대를 예방, 노무현 대통령이 마련한 환송오찬에 함께하다. 노무현대통령의 환송오찬사와 김영일 내각총리의 답례사 등 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성공적 결실을 함께 축하하다. 예방을 마치고 북측 대표단은 워커힐 호텔에 돌아와 한덕수총리의 환송을 받고 김포공항으로 떠나 이재정통일부장관의 환송받으며 고려민항으로 평양으로 떠나다.

백범 김구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응징했던 권중희 민족정기구현회 회장이 자택에서 컴퓨터로 원고 집필 중 심장마비로 별세하심. 고인의 빈소는 강남성모병원 영안실에 마련되었음.

17

지난 16일 자택에서 타계한 고 권중희 선생의 장례식이 20일 '민족통일애국지사 '한길 권중희선생 사회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민족통일애국지사 '한길 권중희선생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는 17일 밤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회를 갖고 장례일정과 장례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다.

18

6.15 한마음통일산악회 제 4차 산행이 삼각산에서 열리다. 우이동 종점 그린파크 호텔 앞에서 만나 소귀천 계곡을 지나 진달래 능선까지 두 시간 여를 오르다. 중간 쉼터에서 히말라야 등반을 준비 중인 중고생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6.15공동선언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다. 진달래능선에서 대동문으로 오르려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힘들어하시는 몇 분 선생님이 계셔서 바로 하산하기로 하고 하산 길에 양지바른 곳에서 점심식사를 마치다. 미리 예약해 둔 4.19탑 아래 식당에서 뒷풀이를 이정태 범민련 산악대장의 사회로 간단한 산행 평가와 낯선 얼굴들의 인사가 이루어지다. 남민전 이재문선생님의 추도식에 참여했던 양심수후원회 권오헌회장님을 비롯, 김영옥선생님, 모성용, 송록희가 뒷풀이 장소에 합류하다. 강담, 김교영, 신동철, 김영승, 김영식 선생님, 이병건, 이호준, 나순석, 나민지, 김래곤, 송지영 참석하다.

인천시 백석동 천주교공원 묘역 이재문선생 묘소에서 '고 중덕 이재문선생 26주기 추도식'이 있었음. 남민전관련동지들과 사회단체 성원이 함께 한 가운데 박석률 동지 사회로 추모의례에 이어 최광운동지의 약력 소개, 모성용 회원의 추모시(전시1) 낭송, 전무배선생님과 권오헌동지의 추도사 그리고 추도노래 등으로 마치다.

강남성모병원 장례예식장으로 고 권중희선생 빈소를 문상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선 김영옥, 모성용, 송록희, 권오헌 함께 다녀오다.

19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13일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및 위령사업 등을 권고했다고 이날 발표하다. '섯달오름사건'은 6.25 전쟁발발직후 경찰에 예비검속된 218명이 1950년 7월 16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 남제주군 상모리 섯달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이던 굴에서 해병대 사령부 모슬포부대 제5중대 제2소대원 및 제3대대원에 의해 집단총살당한 사건임.

강남성모병원 장례예식장에서 '민족통일애국지사 고 한길 권중희선생 사회장 추도식'이 있었음. 각계 대표 등 5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박래전 공동위원장 사회로 추도의례에 이어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님의 추도시 낭송, 호상 리인수씨의 약력 소개, 백기완, 권오헌 공동장례위원장의 추도사, 스웨덴에 거주하는 림원섭선생 부인 이혜자님의 추

도문 낭독, 6.15공동위 일본본부에서 보내온 추도글을 강정구 공동위원장이 낭독하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미망인 김영자님의 유족 인사말이 있었음.

20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추적, 응징하며 최근까지 반한나라당 글을 집필하다 지난 16일 별세한 고 권중희 선생(72)의 노제가 오전 9시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 앞에서 '민족통일애국지사 고 한길 권중희 선생 사회장'으로 치러지다. 노제를 마치고 육철희 '신시민운동연합' 의장, '6.15공동선언을위한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의 추도사와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의 추도시 낭송으로 노제를 치르고 장례식 대열은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이동, 12시 고인의 묘소에서 하관식이 진행되다. 박기호 공동장례위원장 사회로 추도의례에 이어 이헌재선생, 박래전공동위원장의 추도말과 추도노래, 상주인 권태연씨의 유족인사말에 이어 헌화하는 것으로 장례식 모두를 마치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 파주 무건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평통사 주최로 '제74차 평화군축집회'를 열다. 문정현 신부의 대회사, 제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 양홍찬위원장,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 대책위 주병준 위원장,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평통사 문규현 상임공동대표가 '국회예산결산위원들에게 드리는 제언'을 낭독하다. '제언'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 324억원 전액 삭감, 이라크 파병 재연장 반대 및 관련예산 382억 전액 삭감,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예산 2,224억원 전액 삭감,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 960억원 전액 삭감 등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 국방예산안 26조 7,083억 원에서 3조 4,250억 5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다.

21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되어 양심수 석방과 소내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단식중인 김성환님을 면회하다. 임미영, 임경옥 함께하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각계대표들이 함께하는 'IMF 10년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65개 단체 2개 정당과 511명이 함께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는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여는 말, 전빈련 풍물시장 양선아 도깨비지역장, 이랜드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의 생존권 투쟁 현장사례 발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결의발언과 전농, 전농, 전빈련, 민주노총, 한 대련 대표들이 시국선언문을 함께 읽다. 시국선언문에서는 한미FTA비준반대, 비정규직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부당노동행위 중단, 농민생존권 보장, 노점상 생존권 보장, 빈곤층 주거권 보장, 고금리 철폐, 최저생계비 현실화, 빈곤의 여성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다.

조계사 문화관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제13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열리다. 불교인권위원회 관계 스님들과 신도, 민가협, 유가협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박정기, 배은심 유가협 대표들과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의 축하말이 있었고, 이어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한미FTA 저지 투쟁으로 구속된 박석운 집행위원장에게 불교인권상을 시상하다. 구속된 박석운 집행위원장 대신 부인이 시어머님과 함께 받고 소감 인사말을 하다.

22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86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헌 공동의장의 국가보안법 적용 최근 재판 사례 및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발언, 민주노동당 최현숙씨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발언,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발언등이 있었음.

함주명선생 재심에서 무죄선고
양심수 후원회에 10,000,000원 후원금 기탁

함주명 선생님께서 조작간첩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으셨습니다. 1988년 긴급체포되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 부터 잔혹한 고문 등으로 고정간첩으로 조작되어 무기형 선고를 받으셨던 함주명선생님께서는 16년의 옥고를 치루고 1998년 8.15특사로 풀려나 2000년 9.22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하여 2005년 간첩협의가 모두 무죄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가로 부터 받은 피해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민주화운동 양심수 석방, 후원을 위해 애쓴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5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범민련 가입단체성원과 정당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범민련 결성 17돌 기념 및 대선승리결의대회'를 열다. 이태형 집행위원장 사회로 이규재남측본두 의장의 대회사, 백낙청 6.15남측위상임대표 등 각계 인사의 영상축사 상영에 이어 범민련 북측본부 해외본부공동사무국 축사를 노수희, 박석률 등 가입단체 대표들이 대독하다. 이어 임방규통일광장 대표,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등 축사가 있었고,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글모임 '문예청년'이 바친 축시 '바로 당신이다'를 서청 송현석 의장이 낭송하다. 이어 안산통일마당 회원들의 통일장승건립촉구, 한총련 학생들의 국가보안법폐지촉구 삼보일

배 실천사례를 정치수배 8년 중인 김미연 전 경기대 총학생회장이 발표하고 부패정치 청산, 수구냉전 척결을 위한 시국농성단 마당극과 한총련 류선민의장의 총화투쟁연설이 있었음. 이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가 결의대회 현장에 도착, 참가자들의 연호 속에 범민련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성원한데 감사하며 범민련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룬 업적에 존경과 감사 한다며 범민련과 민주노동당이 굳건히 연대하여 대선승리를 이루겠다고 결의를 다지다. 이어 노래극단 '희망새'와 범남본 문예위원회가 준비한 노래가 있는 통일마당극을 풍물놀이와 함께 진행하다. 마지막으로 이승호 한청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다. 참가자들은 '우리민족끼리 기치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자주통일조국만세!' 등 만세삼창을 하는 것으로 모두 마치다. 양심수후원회는 소수영, 김선재, 김희선, 강덕환, 임미영, 권오헌 등 함께.

26 ----------

'이른바 "인혁당 사건 감사의 밤"'이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저녁 6시부터 건국대학교 동문회관 지하 1층에서 열리다. 이날 '감사의 밤' 행사에는 이 사건으로 사법살인 당한 8명의 유족들과 옥고를 치룬 관련자들을 비롯하여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 성원 200여 명이 함께 하다. 김형태 변호사의 사회로 사건관련 영상물 상영과 참석자 소개, 대책위 문정현 대표의 초청인 말씀, 가수 이지상씨 노래공연, 무기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룬 전창일선생의 회고 말씀,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 8명 열사의 유족들 인사말 등 순서로 진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는 만찬이 이어지다. '감사의 밤'은 '인혁당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와 이돈명 변호사과 유족들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쓴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사의를 표하기 위한 자리이다.

27 ----------

평양에서 열릴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남측대표단이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전세기로 평양으로 떠나다. 남측 대표단은 김장수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정승조 중장, 박찬봉 통일부 상호회담대표,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문성묵소장과 수행원 5명 회담보조원 15명 기자단 5명 등 30명이고 북측대표단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김영철 중장 허찬호소장, 리인수소장, 박림수대좌 등으로 밝혀지다. 남측대표단은 11시 평양순안비행장에 도착 김영철 중장등 북측대표단의 영접을 받고 도착성명을 발표하다. 이어 회담장인 송전각초대소로 옮겨 북측 단장 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마중을 받다. 오후 3시 40분 초대소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 첫회의가 열려 양측단장,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이 이어졌고 해상군사분계선과 공동어로 구역 등에서 입장차이가 있었다고 밝혀지다. 이밖에 북측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정상간 종전선언을 위한 협력과 남북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장치, 군사적 적대관계종식과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일체의 적대행위금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준수노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불사용등을 강조했다고 하다. 남측은 군사공동위원회구성, 직통전화설치 비핵화, 공동어로구역지정과 평화수역 방안, 경제사업의 군사적 보장, 북측 민간선박 해주항 직항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등을 제안했다고 하다. 회담대표단은 7시 10분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함께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하고 나섰다고 통일뉴스가 보도하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미제침략군 호전광들이 비행대들과 핵동력 유도탄 잠수함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21일에 핵동력 유도탄 잠수함에 부산항에 들어와 잠수함 작전연습에 광분하고' '일본기지에서 날아든 <E-3> 지휘기의 지휘 밑에 <KL-135> 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으며 감행한 공중전쟁연습에는 <F-16><F-15> 전폭기 <A-10>습격기 <F/A-18> 추격습격기 등 350여대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다. 또한 '23일,26일,27일에 미제 7항공군 배행대가 횡성, 천안, 오산, 예천일대 상공에서 공중전, 근접항공지원, 지상대상물 타격연습 등을 벌였다고 보도하다.

28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공동으로 '국가보안법폐지와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국보연대 박래군 정책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진보연대공동대표의 여는 말, 한용진 국보연대 사무총장과 제정연대 간사의 17대 대선후보들의 두 법안 폐지와 제정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었음.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에 대해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후보는 찬성, 이인제후보는 조건부 개정에 찬성, 이명박후보는 반대입장을 이회창후보는 답변을 거부했음. 특별법제정에서는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후보가 찬성 이명박후보는 반대했음. 이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국보법폐지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규탄발언이 있었고 권오창 실천연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재판장 김용석부장판사) 심리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 재심 3차공판을 열어 조용수사장 동생 조용순씨와 1960.7.30 민의원 선거당시 사회대중당 경북 경산군당위원장이었던 강창덕씨의 증인심문이 진행되다. 두 증인은 검찰과 변호사의 심문에서 당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사회대중당의 간부가 아니었고 당무일을 보지 않았다고 증언하다.

9차 남북적십자회담에 참가할 남측대표단이 회담장소인 금강산으로

떠나다. 남측대표단은 대한적십자사 장석준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홍양호 한적 남북교류전문위원, 정소운, 유광수 실행위원 등이고 북측대표단은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이호림, 김영철 중앙위원이라고 알려지다. 9차 적십자회담은 28~30일까지 진행됨.

29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87회 목요집회를 열고 양심수사면을 촉구하다. 임기란 전상임의장의 여는 말,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부인 임경옥씨의 삼성비리규탄과 양심수사면 촉구발언 민주노총 박종곤 부위원장과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의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 복권촉구발언이 있었음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로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 초청으로 서울에 오다. 김부장은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라산 출입국 사무소(CIQ)에 도착 이관세통일부차관의 영접을 받다. 김양건 부장 서울방문에는 최승철 통권부부부장, 원동연, 강수진 아세아태평양위원회 실장, 리현아태위참사 등 대표단과 수행원 2명이 함께하다. 대표단은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호텔에 도착 이재정통일부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의 마중을 받다. 오후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과 인천외교홍보관 등을 방문 안상수 인천시장의 안내와 설명을 듣다. 저녁에는 워커힐 호텔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함께하다.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2차 국방장관회담 3일째, 양측대표단은 송전각 초대소에서 종결회의를 열어 7개조 21항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합의서'를 채택 서명하다. 조항만을 보면 아래와 같음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종식,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한다.
2. 쌍방은 전쟁반대,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3. 쌍방은 서해해상충돌방지, 평화보장위한 실제적 대책을 강구한다.
4. 현 정전체제종식, 평화체제구축위해 군사적 상호협력
5.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하기로하다.
6. 쌍방은 본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가동시킨다. 등이다.

30

필동 매일경제 빌딩12층 대강당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립2주년 기념식 및 송기인위원장 이임식'이 진행되다. 과거사 관련기관 대표들과 사회단체대표, 진실화해 정리위원회 임직원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실화해정리위원회 임직원 표창장 수여에 이어 송기인 위원장의 기념사 및 이임 인사말이 있었음.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한 위원장과 민족문제 연구소 임헌영소장의 축사, 위원회활동 영상물상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송기인 위원장에게 기념패와 꽃다발 증정이 있었음. 다음 과거사정리 위원회위원장은 안병욱 한신대교수가 지명되었음

용산 국방부앞에서 무건리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와 평통사, 범남본 ,민변, 경기북부사회진보연대, 양심수후원회 등 13개 단체 공동으로 '주민생존 말살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중단및 국방부 규탄대회'를 열다. 국방부가 파주 무건리 일대 550만평 훈련장을 다시 무건리, 오현리, 직천리 일대 550만평을 추가로 확대하고 한미군사 훈련장으로 사용할 계획아래 주민들에게 이주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이주 단지 신청을 강요하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하여 국방부 규탄하고 집회를 열고 있었음. 무건리 훈련장확장저지 대책위 주병준위원장과 현장사진연구소 활동가등이 6.15와 10.4선언에 반하고 국방부 계획의 부당성과 확장계획철회를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으며 '이주단지 신청서'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갖다.

남측을 방문 중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부인사를 전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방문에는 최승렬 통전부부부장 원동현 실장등 6명이 함께했으며 남측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 청와대 문정신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등이 배석하다. 이에 앞서 오전 김양근부장등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와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을 방문하고 2005년 APEC정상회의장이 있던 '누리마루'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주최하는 오찬에 함께하다. 저녁에는 워커힐 김만복 국정원장이 주최하는 환송만찬에 함께하다. 이 만찬에는 2007년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던 민간인 40여명이 함께하다.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 마지막날 대표단은 종결회의를 열고 6개조 10항의 합의문을 채택하다. (합의문 요약)

1. 이산가족 상봉확대 – ①이산가족 대면상봉을 연간 400명씩으로 한다. ②2008년 6.15때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각각 100명씩한다. (화상상봉 자중에서) ③화상상봉을 분기마다 40명씩 1년에 160명으로 한다. ④대면상봉시 거동불편자 상봉가족 1명을 동반한다.
2. 이산가족 영상편지교환 – ①2008년 새해맞이에 각20가족씩 영상편지교환 ②분기마다 30명씩 영상편지교환
3.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 문제를 이산가족문제 테두리에서 계속해결
4. 2007.12.7금강산 면회소 쌍방사무소 준공식에 필요인원참가
5.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금강산 면회소가 준공된 다음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등이다.